

이덕일의 '역사의 창'



최치원과 진골 카르텔

신라 말의 지식인 고운(高雲) 최치원을 흔히 경주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서유구가 쓴 '고인 계원필경집 서문(枚印桂苑筆耕集序)'에 의하면 전북 옥구 출신이다. 최치원은 자신의 문집인 '계원필경(桂苑筆耕)' 서문에서 열두 살 때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는데, 부친 최걸일이 "10년 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나도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공부를 독려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운집(孤雲集)'의 '가승(家乘)'에 따르면 최치원이 당나라로 떠난 것은 경문왕 8년(868년)이었다. 경문왕은 삼국유사 '기이(奇異辨)'에 나오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로 유명한 임금이다. 경문왕은 왕위에 오르 후 갑자기 귀가 나귀의 귀처럼 길어졌는데,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복두장(두건을 만드는 장인)이 죽기 직전 도림사(道林寺)의 대발 속에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다. 그 후 바람이 불면 같은 소리가 났는데, 이 일화에는 경문왕은 감추려 했지만 신라 사람들이 알아

할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문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헌강왕에 대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처럼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이때 "서라벌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는데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면서 풍악과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삼국사기 헌강왕 6년(880년)조에도 사방에 노래와 풍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시중 민공(敏恭)은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변경은 안정되었으니 성덕의 소치입니다"라며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9년 후인 진성왕 3년(889년)조에 삼국사기는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내지 않아서 재정이 궁핍해져 왕이 사신을 파견해서 독촉했더니 도처에서 도적이 별떠처럼 일어났다"라고 비판, 허리에서 사자되는 신경의 경우 단지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후방부의 구조물에 의해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연구가 최근 보고됐다. 이러한 증상은 하지로 내려가는 가장 큰 신경인 좌골 신경이 눌렸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좌골신경통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했으나 실제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 특별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엉덩이 질환

이 내려가는 증상의 경우, 일차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허리에 서 척추신경이 눌려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다. 하지만, 허리에서 시작되는 신경의 경우 단지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후방부의 구조물에 의해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연구가 최근 보고됐다. 이러한 증상은 하지로 내려가는 가장 큰 신경인 좌골 신경이 눌렸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좌골신경통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했으나 실제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 특별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해부학적 그리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엉덩이 주위에서 이상근이라는 엉덩이를 밖으로 회전시키는 운동을 하는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좌골신경이 눌려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은 환자의 5~36% 정도가 실제로는 통증의 원인이 엉덩이 부위에서 좌골신경이 눌리는 것이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이상근 증후군의 경우 그동안 40대 이상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운동을 자주 하

라고 기록했지만 이는 여왕을 거부하는 편견이 개재된 것이다. 진성여왕은 즉위 후 큰 사면을 베풀고, 여러 주·군의 세금을 1년간 면제하는 등 선정을 베풀 임금이었지 황음으로 나라를 망친 군주는 아니었다.

불과 9년 전에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신라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신라는 통일 이후 국토는 넓어지고 세금은 늘어났으며 실크로드 무역의 이익까지 차지했지만 그 이익은 서라벌 중심의 일부 진골과 특권층만 누리는 열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신라는 고구려·백제 유민들을 화학적으로 통합하고, 고구려·백제 옛 강토 회복에 힘써야 했지만 진골 카르텔은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

진골 카르텔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면서 옛 백제·고구려 지역의 대다수 민중 생활은 황폐해졌다. 최치원처럼 백제 출신의 6두품 지식인은 당나라 과거에 급제한 국제자 지식인이었지만 쓰일 곳이 없었다. 이런 사회적 모순이 진성여왕 즉위 이후 임계점에 달해 폭발한 것

이었다.

진성여왕은 최치원에게 11개 조의 시무책을 작성해 올리게 하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지만 이 또한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최치원은 삼국사기에,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나갈 뜻이 없었으며, 산림과 강가, 해변을 소유 방랑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발적인 은거가 아니라 진골 카르텔에 의한 강제 퇴출인 셈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신라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열매는 소수 카르텔이 독점함으로써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이 중시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누가 이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지평을 만든 유권자들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가정의 정당을 정권을 주겠다는 예고가 아닌가 싶다.

<한가림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조승한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직장인 박모(41)씨는 3년 전부터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오른쪽 다리에 찢김거리는 통증이 이어지는 증상이 발생했다. 통증은 점차 심해져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

환자는 병원을 방문해 척추 디스크 같다는 전문의의 판단 아래 MRI를 촬영했고, 미세한 디스크 돌출을 발견했다. 박씨는 허리에 신경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큰 효과가 없었고, 이후 6개의 다른 병원을 찾아 20여차례 허리 부위에 신경 주사 치료를 받았다. 또 4차례에 걸쳐 허리 및 골반의 MRI를 촬영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원래 활동적이었던 환자는 기존의 직장도 그만두고 거의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

엉덩이의 통증 또는 다리로 저린 현상

'히트 앤드 런'

고 있었다. MBC 야나운서 대선배인 이성규씨는 특히 일본야구에 정통해 수많은 야구 저서를 내기도 한 야구 전문가다. "어이 김 아나, 오늘 해태 선발투수가 방수원이래."

"그럼 2회 끝나고 교체 될거고 오늘 목이 좀 아프겠네요."

필자는 방수원 투수가 중간 계투요원으로 2이닝 정도를 소화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찾은 투수교체로 중계방송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만 생각했다. 정작 경기가 시작되자 마운드에 서있는 방수원은 팬들이 익히 아는 그런 투수가 아니었다. 타자 바깥쪽으로 흐르는 슬라이더와 느린 커브 등 변화구로 삼미 타자들을 농락했다. '물찬 제비가 하늘을 날 듯' 했다는 표현이 맞을 듯했다.

"어이 김 아나, 오늘 방수원이 뭐 일 내는 것 아닌가? 조짐이 이상한데."

관중석에서도 말로만 들던 '노히트 노런'의 대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팬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7회 초, 그때까를 해왔고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MBC 불박이 캐스터로 일하며 타자의 방망이가 힘차게 들렸다. 누가 봐도 2루수 옆을 꿰뚫는 안타성 타구였다.

하지만, 철벽 2루수 차영화의 다이빙 캐치로 위기를 넘기고 8회 초 담장 근처까지 궤적을 그리던 타구도 몸을 날린 좌익수 김중모의 글러브로 빨려들어갔다.

는 젊은 남자들의 유행물도 늘고 있다. 심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 이상근의 미세파열이나 염증 등에 의해 점차 근육의 탄성도가 떨어지는 것에 기인한다.

환자는 특징적으로 엉덩이 한 중앙부를 눌렀을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증상은 점차 다리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특징적으로 허리에 기인하는 통증의 경우 오래 걷거나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반면 이상근 증후군의 경우에는 오래 앉아있는 경우, 그리고 다리를 바깥방향으로 굽히거나 내회전시켰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전후 충분한 엉덩이 근육의 스트레칭을 시행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과도한 관절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게 좋다.

치료로는 정확하게 진단만 된다면 비교적 간단한 근육 운동, 자세 교정 및 일반 근이완제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70% 이상이다. 일부에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주사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

절 내시경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박씨의 경우 약 30분에 걸쳐 고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이상근의 좌골신경 압박 부위를 풀어주는 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 전 증상의 30% 정도의 신체 상태에서 현재 90%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됐고, 대부분의 일상생활 및 운동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이러한 고관절 내시경의 경우 기존의 수술방식과는 다르게 약 1cm 정도의 절개선 2개만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장점이 있으며, 절개 부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통상 수술 후 1~3일 안에 퇴원 및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엉덩이 부위의 통증은 흔히 요추에서 발생한다는 통념 때문에 대부분 원인을 허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허리의 운동 및 관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엉덩이 주위 근육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일상생활 습관으로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상 발생시 일차적인 허리 평가나 처치 후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엉덩이 부위의 근육 및 신경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 한 몸이나 다름 없었다. 선수들에게만 광주, 호남팬들의 성원이 즐거움이었고 분발하도록 격려해 주는 함성이었을 것이다. 또한 몸에 땀 흘리며 정신과 호남팬들의 열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각오를 경기장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때였다. 타이거즈는 꼭 이겨야 하는 순간에 힘을 모아 반드시 이기는 팀이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챔피언스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은 야구팬과 지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9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던 선배들과 지역민의 열망이 부응하는 선수들이 돼야 한다.

타석에서 맥없이 삼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은 없다. 팬들은 끈질긴 승부로 상대팀을 괴롭혔던 빨간 유니폼의 해태타이거즈 선수들의 근성과 상대팀 선수들을 주눅들게 했던 카리스마를 다시 보여주길 기대한다. 아니 꼭 보여줘야 한다.

32년 전 5월 5일 어린이날, 프로야구 최초의 '노히트 노런'이란 대기록을 세운 방수원 투수의 경기를 문득 회상하며 그들에게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이거즈 팬으로서 작전 사인을 보낸다. "히트 앤드 런!!!"

社說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예타 꼭 통과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광주시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곧 갈림길에 들어선다.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첫 대안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내용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국고에서 확보해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 지우롱(九龍) 자동차의 광주 투자협약과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큰 동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도 잇따라 협력을 약속하고 나서 일단 전망은 밝다 하겠다.

이렇듯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격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광주시 노조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한 것이 흑역사도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시 조직관리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벌인 바 있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본부 조직 승인도 미뤄지는 등 미묘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이 예를 태우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광주와 호남,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만큼 만에 하나 정부가 움츠러들게 대처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정부 입장에서야 공무원들의 전공노 가입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를 꼬투리 삼아 국정 최대 현안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 투자까지 가시화된 상황에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질 경우 그 과장 또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발 벗고 나서서 뛰어아 함은 물론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 현안 해결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두 야당은 이제 실천 전면에 걸쳐 특별감사를 벌인 바 있고,

어린이날이라고 너도나도 놀러들 가는데

오늘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지만 여수에 거주하는 하은(여·5)·도빈(3) 남매는 연휴가 반갑지 않다. 아빠(30)·엄마(25)가 예전에 약속했던 나들이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하은이 아빠는 지난해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은이 남매는 안타깝게도 이번 연휴를 아빠가 누워 있는 병원에서 보내야만 한다.

우리 주위에는 하은·도빈 남매처럼 어린이날 연휴가 반갑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6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나들이에 나설 가족들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수목원과 휴양림 등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광주와 전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하은을 돕기 위해 빈곤가정 지원 사업을 진

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후원금 때문에 제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가 조사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인 82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특히 전체의 5%는 세 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자살 충동 위험 집단에 속했다.

오늘은 제95회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제 한국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과 전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하은을 돕기 위해 빈곤가정 지원 사업을 진

無等鼓

'늦은 밤 숲집에서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 꽃다발을 놓고 간다며/ 마늘 찢던 손으로/ 꽃다발을 끌어안고 나오신다/ 꽃다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이 꽃다발은 할머니에게 어울리네요/ 가지세요/ 할머니는 한사코 가져가라고 나를 부르고/ 나는 애써 돌아보지 않는데/ 또 오기나 하라는 말에 / 온다는 말 없이 간다는 말 없이/ 꽃향은 두고 술 향은 데리고 간다'(이병률 '온다는 말 없이 간다는 말 없이' 중)

이병률문학장-문장(munjang.or.kr)이 기획한 프로젝트다. 지난 2006년 도종환을 시작으로 안도현, 나희덕, 문태준, 황인숙, 장성남 시인 등이 역할을 맡았다. 문장 배달은 성석제, 김연수, 은희경, 하성란, 조정란 작가 등이 이어졌다.

문학집배원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현재 매일을 받는 이는 1만8000여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보낸 976편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초창기 편지를 받았던 나도 이 글을 쓰

문학 집배원

어느 날 메일함을 열었을 때 이런 시(詩)가 담긴 편지를 발견한다면 어떤 기

면서 다시 문학 편지를 신청했다. 홈페이지에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당심도 즐거운 편지를

본일개. 메일을 클릭하는데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낮은 목소리의 배우가 이 애절한 시를 낭송해 준다. 수많은 시 가운데 이 작품을 골라 보낸 이는 시인 문정희다. 그녀는 "꽃과 향을 품어 안고 마늘 냄새 속에 살아낸 한 해였다. 우리는 마늘을 까는 할머니이고 술에 취해 꽃을 버리고 돌아가는 취객이다"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받아 보시길. 월요일에는 시가, 목요일에는 문장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과업 끝난 나무와 풀들/ 녹색 공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줄기와 가지 속 발동기 돌려 수액 퍼 올리라/ 잎 틈새 속에 살아낸 한 해였다. 우리는 마늘을 까는 할머니이고 술에 취해 꽃을 버리고 돌아가는 취객이다"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그녀는 시 배달 '문학 집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와 함께 문장을 배달하는 또 다른 집배원은 소설가 서영은이다.

'문학 집배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

가.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투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